

세라(Shera)의 도서관 인식론 연구*

A Study on the Shera's sociological aspect of librarianship.

남 태 우(Tae-Woo Nam)**

초 록

본 연구는 Jesse H. Shera(1903-1982)가 도서관 및 도서관학과 인연을 맺게 된 동인을 연구하였다. 특히 그가 도서관 자체를 대상물(기관)로 인식하지 않고 개념으로 보고 사회인식론을 도입하여 연구한 것은 방법론뿐만 아니라 학문성을 과학으로 증명하는데 중대한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도서관은 '인간의 기록지식을 사회적 기억으로서 체계 있게 조직하여 제공하는 사회기관이다'. 즉 도서관을 사회제도가 아닌 사회기관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Shera가 도서관 및 도서관학을 사회 인식론적 관점에서 접근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on the Shera's sociological aspect of librarianship. Jesse H. Shera, educator, philosopher, and theoretician, considered that perhaps his most significant contribution to librarianship was not a "thing" but a "concept". Library was created to meet certain social necessities, and that its development is closely related not only to intellectual history but also to change i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the value system of its supporting culture. It is axiomatic, then, that the library as a social instrumentality, is, as it has always been, conditioned and shaped by the social milieu within which it function. Therefore we are concerned with the need for a new epistemological discipline, a body of new about knowledge itself.

키워드: 세라, 문헌정보학, 도서관학, 사회인식론, 도서관, 도서관인식론, Shera, librarianship, sociological aspect of libraries, sociological of libraries, epistemological of librarianship.

* 본 논문은 2002학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namtw@cau.ac.kr)

■ 논문 접수일 : 2003. 2. 18

■ 게재 확정일 : 2003. 3. 12

1 서론

Jesse H. Shera(1903-1982)가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도서관학 및 도서관계에 남긴 영향은 너무 크다. M. Dewey가 도서관 경영의 실제적인 업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학자라면, Shera는 도서관 및 도서관학의 이론과 사상을 전개시키고 체계화시킨 대표적인 학자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Shera의 일생을 3기로 분석하면 1947년에서 1952년까지 시카고대학시절, 1952년에서 1970년까지는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대학에서 도서관학을 가르친 교수시기 그리고 1970년 은퇴 이후부터 1982년에 작고하기까지 교육과 저술활동에 전력을 기울인 시기로 구분된다.

Shera는 교육자이며, 철학자이며 이론가로서, 특히 라이브러리언십을 '대상물'이 아닌 '개념'으로 보고 접근한 것이 그가 남긴 공헌 중 대표적인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가 라이브러리언십 그 자체를 '기관'이나 '대상물'로 보지 않는 것은 그가 평생에 걸쳐 연구한 이념적, 사상적 테마인 '도서관이란 무엇인가'를 사회적 측면에서 연구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 것이며, 특히 Ranganathan의 『도서관학 5법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서관은 성장하고 있는 유기체이다'라는 철학과의 깊은 연관성에서 구축한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도서관을 '기관학'이나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탈피하고 관념

적인 특히 사회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이론을 전개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특히 도서관학의 교육 및 학문적 기반을 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한 대표적인 학자로 평가되고 있다. Shera의 논문들 대다수는 도서관학 본질을 규명하려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또한 도서관인으로서의 학문적 이론을 전개하였고, 현장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논문들을 상당수 발표하여 미국 도서관 발전을 촉진하는데도 기여하였다. 그가 1949년에 발표한 『공공도서관의 기초』 이후 단행본이 15종에 이르며 각종 논문은 480여 편이 넘게 논술하였다. 그의 초기의 관심은 공공도서관사 연구에서 시작되어 분류, 목록, 서지, 도큐멘테이션, 도서관의 기계화, 공공도서관 운영, 도서관교육과 도서관연구 등 매우 광범위하게 활동한 도서관학계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의 저작목록을 분석해보면 『...의 기초(반)(The foundation ...)』로 하는 논제가 많은 것도 그가 이론적 기반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증명되고도 남는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전 생애에 걸쳐서 '도서관이란 무엇인가'를 사회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논구하였다. 특히 도서관을 물리적 기관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개념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하여 결국 사회 인식론적인 방법론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 주제에서도 그는 라이브러리언십의 이론적 기반을 중점적

으로 연구하였다. Shera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 『*Foundations of the Public Library: The Origins of the Public Library Movement in New England, 1629-1855*』에서 ‘공공도서관 성립의 사회적 기반을 역사적으로 규명’하려고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1960년대에는 라이브러리언십 그 자체의 이론적 기반으로써 사회적 인식론을 도입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Shera가 인류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도서관’의 본질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 기관을 연구대상으로 한 라이브러리언십의 본질을 어떻게 접근하고 여기에 사회 인식론적 이론을 접목시키고자 한 그의 논리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주로 역사적 연구와 문헌연구가 주요한 연구방법으로 사용되었다.

2. Shera의 생애 및 도서관 사상분석

본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Shera의 생애를 일별하고, 그의 생애에서 도서관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Shera가 1931년부터 1987년까지 단행본 15종을 비롯하여 발표한 논저를 계량 서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1 Shera의 생애 및 도서관과의 인연

Shera는 네덜란드-아일랜드계 출신으로

1903년 12월 8일에 오하이오주 옥스퍼드에서 태어났다. 그는 옥스퍼드 소재 윌리엄 맥구피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마이애미 대학교에 진학하여 1925년에 영어학 우등생으로 문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졸업 후 지도교수였던 Edgar W. King의 주선으로 마이애미 대학교 도서관직원이 되는데(Rawski 1985, 348), 이것이 도서관과 인연을 맺는 최초의 계기가 된다.

그는 사서직으로 근무하면서 1927년에는 예일대학 대학원에서 영문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는 초창기에는 그는 영어학 교수가 되기를 원한 결과인데, 그가 예일대학에서 학위과정을 마무리지을 때 쯤 경제 대공황의 증후가 이미 가시적으로 시작된 시기였다. 그래서 영어학 교수의 꿈을 접고 1928년에 컬럼비아 대학 도서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입학한 연유도 학부 지도교수였던 King의 제안에 의한 것이었다. 이것은 도서관학과 맺는 첫 번째 인연이다. 도서관 직원이라는 현장 경험을 통해 이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또 영어학 교수가 되고자 한 욕구의 간접적인 욕구의 창출로 도서관학 대학을 진학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인구문제 연구소 스크립스 재단』에 사서이자 연구 보조원으로 임명되어 1938년에 시카고대학 도서관학 대학원의 박사과정에 입학하기까지 그 직을 유지하였다. 박사과정 2년 동안에 그는 그 자신이 생각한 것을 구상하고 확인한 라이브러리언십의 너비(폭)에 대한 아이

디어를 조우(遭遇)하여 얻게 된다. 그래서 도서관학 대학원에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철학적, 이론적 그리고 종합 학문적 접근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거기에서 Louis R. Wilson, Douglas Waples, Carleton Joeckel, Ralph Beals 그리고 Pierce Butler 등 당대의 내노라 하는 소수의 도서관 지도자들과의 만남은 그에게는 커다란 행운이었다. 그리고 1944년에는 시카고 대학교에서 도서관학 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였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Foundations of the Public Library: The Origins of the Public Library Movement in New England 1629-1955*』이다.

Shera가 시카고 대학 도서관학 대학원에서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 그리고 그가 학위를 수여 받기 이전 수년 동안에 그는 워싱턴 대학에서 일을 하였는데, 처음 1940-41년에는 미 의회도서관에서 『도서관센서스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후에는 1941-1944년 4월까지에는 『전략서비스 연구소』의 『중앙 정보분과 연구』의 부 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워싱턴에서의 그의 처음 프로젝트는 그의 임무에서 분명하게 책임을 지지 못했기 때문에 좌절하였지만, 『전략서비스 연구소』에서의 경험은 매우 중요했다. 전통적인 도서관, 그림 소장품, 그리고 “지적인 도큐먼트”(다양한 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감독한 것뿐만 아니라 “검열차단”(검열국으로 부터의 우편물의 인수)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었다. 이러한 조직되지 않는 대량의 자료

를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만 하였으며, 새로운 정보검색의 방법을 실험까지 해야만 하였다. 기계, 펀치카드,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으로 표를 작성하여 스크립스(Scripps)에서 공개하는데 정보의 기록, 추적, 탐색, 그리고 검색을 주제명 표목(혹은 디스크립터)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통한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들 기계화로 실험하는 것 이외에도 그는 경영과 정부 도서관을 통찰하는 값진 경험을 얻었다(Kaltenbach 1986, 763).

워싱턴 대학 재임 시절에 Shera는 박사학위 논문 작업을 계속하면서 Ralph Beals와의 우정을 강화시켰다. Beals는 그 당시 워싱턴 D. C.의 공공 도서관의 부관장이면서 도서관학 박사과정 동료였으며, 또한 그의 라이브러리언십의 이해력을 확장시키고 강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준 친구이자 동료였다. 1944년 4월에 Beals는 시카고 대학 도서관장으로 보임되는 데 Shera를 부관장으로 초빙하여 그 당시의 공공서비스의 기술봉사를 최초로 담당케 하였다. 또한 Beals가 도서관학 대학원 학장으로 임명받았을 때는 Shera에게 시간강사로 강의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그래서 Shera는 대학 강단에 서서 그렇게 강의하고픈 영문학 강의는 아니었지만, 최초로 강의 경력을 갖게 되었고, 1947년에는 도서관학 대학원 전임강사 교수요원으로 임명되기에 이른다. 그래서 그의 대학 시절의 꿈은 이루어진 것이다. 강의 과목은 대학 도서관론, 경영론, 편목법, 미국

도서관사, 그리고 분류 이론을 강의하였는데, 그에 주관심사는 후자의 두 개 주제로 집중되었다(Kaltenbach 1986, 763). Shera에게 있어서 King교수는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 스승이라고 한다면 Beals는 그의 꿈을 이루게 해준 절친한 동료이자 친구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학 대학원에서 그의 동료들과 함께 그는 도서관 서비스에 새로운 기술의 적용에 대해 숙고하였지만, 1950년에 Margaret Egan과 함께 서지 조직화 회의에서 서지를 조직하는 문제, 그리고 1952년 초에 『미국 도큐멘테이션 학회: ADI』를 부활시키는 설립 위원이 되어 분주하였기 때문에 그의 아이디어를 보다 구체화시키는 데에는 수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1952년 말에 Shera는 웨스턴 리저브 대학 도서관학 대학원(WRU)의 학장으로 임명되었다. Shera의 학장직은 개인적으로나 기관 모두를 위한 가장 행복하고 충실한 직위중의 하나였다. Shera를 위해서 리저브 대학은 그의 강력한 윤리적 지주가 되었고, 또한 리저브 대학은 Shera에게 저술과 연설 할 시간을 갖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그래서 그는 리저브대학을 위해서 특히 도서관학 대학원을 위해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였다. 아마도 Shera의 가장 위대하고 유일한 공헌은 초창기 정보검색 분야의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개발시킨 『도큐멘테이션·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 CDCR』의 창설일 것이다. 1952년 11월에 Shera와 그 당시 컬럼버스

에 『바텔 기념연구소』에 재직중인 James Perry는 새로운 분야에 있어서의 공동연구와 후에는 BMI와 웨스턴 리저브 대학의 후원하에 국제회의에서 제안을 동의하였다. BMI에서의 조건이 곧 변화되고 Perry가 떠나자 Shera는 그의 동료인 Allen Kent에게, WRU에 협력·동참해 주기를 설득하여 마침내 1955년 4월에 CDCR이 창설된 것이다 (Kaltenbach 1986, 763).

CDCR 창설은 성공적이었다. 1956년 1월에 개최된 3일간의 『기록지식의 실용적 이용법(Practical Utilization of Recorded Knowledge: PURK)』이라는 국제적 회의로 도서관계뿐만 아니라 기업, 산업, 정부, 그리고 대학을 대표한 약 700여명의 참석자들이 참석한 대단한 성공작이었다. 이 회의에서 다음 10년 동안 개최되는 연속적인 중요회의,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청원하는 국제 및 학제간학적 회의의 시발점이 되었다.

한편 Perry는 WRU에서 『탐색 선별기(searching selector)』를 디자인하고 고안하였다. 그리고 1959년 초에는 대학에서 사임을 하였는데, 이는 CDCR를 위해서 초고속전자 대응물을 구축하기 위해 『제너럴 일렉트릭』사와의 계약 때문이었다. 연구 계약은 여러 과학학회와 정부 기관간에 맺어졌으며, 특히 야금술의 문헌을 조직하고 초록하는데 『미국 메탈학회』와의 계약이었다. 다양한 운영기법으로 이들 모두가 성공적이었으므로 정보 추적과

검색에서 연구·개발, 새로운 평가, 그리고 비전통적인 방법을 증진시키는데 CDCR의 본래의 목적이 비록 교육 프로그램이 새로운 코스와 세미나를 통해 보충(補足)되기는 하였지만, 크게 축소되었다. Perry는 1960년에 WRU를 떠났고, Kent는 1962년에 떠났다. 그래서 Shera는 1963년에 A. J. Goldwyn을 CDCR의 선임 위원이자, 사무총장으로 임명하여 스텝진들을 경영의 부담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 센터의 업무를 재조직하고, 『비교 시스템 연구소』를 개설하였다.(Kaltenbach 1986, 763).

CDCR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면서 Shera는 도서관학 대학원의 학장과 경영 총수로서의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1954년에는 대학원 50주년에 관여하여 교육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행사를 주관하였으며, 중요한 사무를 관장하고 연설문을 작성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전문직 업무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53년부터 60년까지는 ADI의 공식 잡지의 편집자로서 그리고 1954년부터 59년까지는 WRU 신문사의 편집자로서 봉사하였으며, 또한 1961년부터 68년까지는 『월슨 도서관보』에 매월 컬럼을 기고하였다.

이러한 왕성한 Shera의 활동에 대해 Verner Clapp이 평가하기를 “세라는 우리들을 위해 너무 많은 일을 하였다”라고 평가했다(Kaltenbach 1986, 764). 학장으로서 Shera는 전임강사 요원을 증원시켰

으며, 보조적인 연구와 학위논문 작성을 통해 학위를 얻을 수 있는 도서관학 석사 학위를 받도록 대학원 과정을 가능토록 하였다. 그는 또한 연구를 강조하기 위해 문헌정보학에 대한 강화된 과정으로 박사 학위 과정을 개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H. Curtis Wright가 쓴 『라이브러리언쉽과 정보학간의 가교로써의 세라』라는 논문에서 ‘도서관학교에 최초의 도큐멘테이션 센터를 설립한 세라는 라이브러리언쉽에서의 그의 가장 위대한 공헌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라고 평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보학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기술적인 부면을 강조하고, 커뮤니케이션 그 자체의 인간적 측면을 무시함으로써 도서관 전문직에 긴장과 혼란을 연이어 침투케 한 것이 그의 가장 잘못된 우를 동시에 범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라이브러리언쉽을 위한 교육재단에 큰 관심을 가지고 그는 라이브러리언쉽의 철학과 이론에 대한 교수들과의 연속적인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래서 그는 3년 연구기간으로 1956년 2월에 카네기 재단 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1972년에 이 연구의 결과물로 『라이브러리언쉽 교육 기반론』이라는 보고서를 발행하였다.(Shera 1972). 그의 많은 활동과 다른 어려움으로 인해 지연되기는 하였지만, Shera는 “최초의 투자에 대한 지혜가 결국 평가를 받는 종결된 연구의 질에 있다”(Kaltenbach 1986, 764)라고 하였다. 이 책으로 Shera는 1974년에 스퀘어크로우 출판상

(Scarecrow Press Award)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1970년 6월에 CWRU 도서관학 대학원의 학장직을 은퇴하였다. 그 이후 첫 해에 텍사스대학 도서관학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였으며, 그 다음 해에는 리저브 대학으로 다시 돌아와 강의를 하였다. Shera는 종종 1-2주간, 한 학기동안 또는 1/4학기 동안 리저브 대학과 기타 많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였다. 그는 저술 활동도 계속하였는데, 그가 말하기를 “저술활동이 성미에 맞다”(Kaltenbach 1986, 764)라고 하였다. 그리고 전문직 업무에도 부분적으로 활동을 계속하였다. 또한 그는 계속해서 연사, 편집자, 기고자, 상담가로서 대단한 인기가 있었다. 이러한 Shera 연구 활동을 Goldwyn에 따르면 Shera와 Bacon과의 닮은 점을 “세라의 공헌의 정도를 논의할 때 위대한 철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과 동등하다”(Goldwyn 1983, 4)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지적 탐험가로서 Shera를 기술할 때는 도서관 전문직과 도서관학 교육에 대한 위대한 공헌자로 강조하고 있다.

Shera는 축구, TV, 사회인식론, 또는 고전 음악이든 어떤 주제이든지 광범위한 관심영역과 다양한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Alan Rees가 Shera에 대해서 『과학정보 뉴스』에 게재하기 위해 Shera의 개인적 인물평에 대해 써 주기를 요청하였는데, 세라는 이에 대해 『과학정보

뉴스』가 나의 은퇴에 주목해야만 하는 것으로서 알려진 발행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Kaltenbach 1986, 764)라고 하였다.

이처럼 그의 학문적 출발은 영문학이었지만 Shera는 도서관직과 도서관학의 출발은 그의 지도교수의 주선으로 모교의 도서관에서부터 출발한다. 그의 실사구시의 탐구심은 도서관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도록 하여 이론과 실제간의 가교역할을 자임하면서 평생 동안 도서관 본질을 사회 인식론적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2.2 Shera 논저의 계량 서지적 분석(1931-1982)

전술한 바처럼 Jesse H. Shera(1903-1982)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도서관학자로서 이론가, 교육자, 철학자이다. 그리고 그의 초창기 관심은 공공도서관사 연구에서 시작되어 분류, 목록, 서지, 도큐멘테이션, 도서관 기계화, 공공도서관 운영, 도서관 교육과 도서관 연구 등 매우 광범위하게 활동한 전천후적인 성격의 학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라이브러리언십의 이론적 기반에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Shera의 박사학위 논문은 『공공도서관 성립의 사회적 기반』을 역사적으로 규명하려고 하였으며, 1960년대에는 라이브러리언십 그 자체의 이론적 기반으로써 ‘사회적 인식론’을 도입하려고 시도하였다. 그의 저작 목록을 살펴보면 『...의 기반(The

foundation ...』으로 하는 논제가 특히 많은 것도 그가 이론적 기반에 높은 관심을 보여준 것이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논저들은 본질적인 연구에 해당된다.¹⁾

『*Foundations of the Public Library: The Origins of the Public Library Movement in New England 1629-1955*』,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1949. ²⁾ "An Epistemological Foundation for Library Science," in Edward B. Montgomery, ed. ³⁾ *The Foundations of Access to Knowledge: A symposium*, Syracuse University Press, Syracuse, N.Y. 1968. 등이다.

Shera가 1931년부터 1987년까지 발표한 논저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논저가 발표된 형식에 따라 8개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단행본 형식에서부터 참고도서 연감의 리뷰에 게재한 것까지 8개 형식이다. 8개 형식의 발표된 논저수가 무려 480여 편이나 되는데 단행본류가 15권, 단행본 일부에 포함된 페이지, 기사, 논평류가 69편이며,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논문이 125편, 월슨 도서관보에 36권부터 43권까지 무려 8년 동안 절립을 74편이나 발표하였으며, 또한 미 도큐멘테이션지의 사설도 4권에서부터 11권에 이르기까지 8년 동안 29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리포트가 12편, 'Of' 시리즈로 시작되는 서지가 무려 130여 편이나 되며, 마지막으로 미 참고도서 연감의 리뷰에 제 6권부터 11권까지 6년 동안 26편의 기사를 발표하

였다. 이들을 종합해 보면 480여 편이나 되는 방대한 양의 논저를 발표한 것이다. 이를 60평생으로 나눈다면 1년에 8편이나 발표되는 양이다(Rawski 1985, 354-371). 그의 저작기간이 1931년에 『*Handmaidens of the Learned World*』(*Lib. J.* 56(1) 21-22(January 1931))을 발표한 이래 1983년에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In *The Study of Information: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edited by Fritz Machlup and Una Mansfield. 이 발표되기까지 51년간이기 때문에 1년에 10여 편의 논저를 발표한 셈이다. 이상과 같은 480여 편의 논저들의 주제를 보면 백과사전적 성격임을 알 수 있다. 이런 경향은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발전의 초기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또한 Shera가 관심을 갖는 영역의 광대한 폭을 짐작케도 한다. 또한 도서관의 본질과 학적 기반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섭렵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으며 특히 그의 도서관 지식론은 사회 인식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의 논저들 중 사후에 발표한 논문이 한 편이 있는데 이 원고는 작고하기 이전 만년에 작성된 논고로 생각된다. 특히 『라이브러리언십과 정보학』(Shera 1983, 379-388)이라는 논문이 수록된 논문집은 『정보의 연구』는 그의 서거 익년 1983년에 출판된 것이다. 편자의 일인인 Una Mansfield에 의하면 원고는 Shera 서거

수개월 전에 제출된 것으로서 실제로 쓴 것은 1981년 전반으로 추측하고 있어 문자를 통한 유고라고 생각된다라고 평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Shera는 1949년에 『공공도서관 첫걸음』을 출판한 이후 단행본으로는 15종에 이르며, 논문과 기사는 총 480여 편에 이르는 왕성한 필력으로 그의 연구와 탐구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다. 그가 연구를 시작할 초기에는 역사적 연구를 통해 체계를 세우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는 전기의 미국 식민지 시대의 공공도서관의 발자취를 더듬는 발전사를 취급한 처녀작 이후 역사적 연구에 몰두하지 않았다. 만약 그가 역사적 연구만을 전념하고 몰두하였다면 이미 널리 알려진 E. D. Johnson의 『서양 도서관사』를 훨씬 뛰어넘는 도서관사 저술도 가능하였을 것이다 라고 평가들은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도서관학 학자이기 이전에 도서관인이었다. 이러한 점이 미국 도서관계를 위하여 불행 중 다행이었던 줄도 모른다. 즉, 그는 먼저 도서관인으로서의 관점에서 학문적 이론을 전개시키고 현장의 문제점들 중심의 논문들을 상당수 미국 도서관계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하였다.

그의 이러한 다양한 논저들에서 언급한 논지의 핵심은 도서관 교육이라는 시각에서 사서들이 지녀야 할 기본적 지식이 무엇이나를 구명하므로써 도서관학의 본질에 접근하려고 시도하였다. 따라서 사서

에게 요구되는 기본적 지식은 도서관의 기능 또는 역할을 검토해 봄으로써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믿었다. 그는 또한 사서의 제1책무를 서지 조직화를 주 핵심으로 보고 있다. 서지 조직화라는 용어는 1950년대 Shera의 도큐멘테이션 이론 가운데 중심적 개념이다. 이것이 1960년대 이후부터 사용된 것도 라이브러리언십 중심은 문헌의 효율적인 조직과 제공에 있으며, 그것을 지원하는 기술이나 이론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정보학의 도입을 강력하게 주창한 것이다. 따라서 Shera에 의해 라이브러리언십과 정보학과의 관계는 양자를 협력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한 좋은 자료가 바로 그가 1968년에 발표한 『라이브러리언십, 도큐멘테이션 그리고 정보학』이라는 논제에서 설명이 잘 되어있다(Shera 1968, 58-65).

3. 사회 기관으로서의 도서관론

본 장에서는 도서관을 '사회기관'으로서 인식한 Shera의 이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내용은 사회조직에서의 '제도'와 '기관'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특히 Shera와 Gates의 『도서관학 개론』서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도서관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Shera의 도서관 이미지론과 사서의 상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3.1 사회조직에서의 '제도'와 '기관'론

Charles H. Cooley는 “수많은 뒤섞인 시스템으로 구별되어진 상호활동의 방대한 조직”으로서 문화의 조직을 정의하였다(Code 1922, 19). 어떤 문화의 사회 조직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 제도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래서 그 기관과 연합과 함께 사회 제도(制度)는 사회 조직의 설립과 그 가장 영향력 있는 요소이다. ‘제도’라는 단어는 사회가 인간의 활동에서 형식을 강요하고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고정하는 사회현상, 관습, 또는 형식을 갖춘 구조의 집단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회 과학에 의해 고안된 언어적 상징이다. 제도는 사회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서 그들의 행동을 구체화하고 그 구성원에 관하여 그 의지를 강요하는 기구이다.

William G. Sumner는 제도가 사회적 관습 없이 생겨났고, 그리고 각 제도가 개념(아이디어, 개념, 공론, 또는 관심)과 구조를 의미하는 것을 유지하였다(Sumner 1940, 53-54)고 보고 있다. 구조는 개인, 설비, 구성, 그리고 종교적 의식으로 구성된다. 개인에 따라서, 사람은 자격 있는 그룹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그룹은 “외부인”과 구별되는 “친밀한 관계”로서 입증되는 사람이다. 설비는 구성원 기능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Sumner 1940, 54).

즉 제도란 사회적 창조물, 즉 말하자면 사회적 방편이며, 이를 통해서 문화는 이루어지고 보존된다. 그것은 사회구조, 특

히 문화구조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이다. 이와 같이 제도는 매우 큰 힘을 지니고 있다. 제도란 그 사회 조직상에 투영된 문화의 신념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반영이다. 그것은 사회를 결합시키는 기본적인 힘이며, 이 힘이 없이는 그 사회는 붕괴되어 버리거나 해체되고 만다.

그러면 기관(機關)이란 무엇인가? 이것 역시 사회적 방편을 말하며, 제도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은 바로 기관을 통해서 제도가 시행되는 방편이다. 예컨대, 법은 하나의 제도이고, 재판소는 이에 따른 기관이며, 종교도 하나의 제도이며, 교회는 하나의 기관이다. 교육 혹은 지식이 하나의 제도라면 학교 및 도서관은 제도에 해당된다. 따라서 국회는 하나의 제도이며, 국회도서관은 기관에 해당된다. 그래서 Shera는 도서관은 하나의 ‘사회 제도’라고 보는 학자들의 견해와 달리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도서관은 하나의 사회 제도가 아닌 ‘사회 기관’으로 인식한 것이다’.

지식기반의 인프라가 되는 도서관을 바라보는 시각은 일반적으로 ‘존재가 의식에 의하여 규정’되는 ‘이데아적인 관념론’과 ‘의식이 존재에 의하여 규정’되는 ‘유물론적인 형식’으로 대별할 수 있다. 도서관이란 ‘물 자체(physical itself)’를 의식 대상으로 한정한다면 후자가 일견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미국의 초창기 도서관 경영기법이 여기에 속한다. 이는 문화 후진국의 전제형태에 해당되며, 반면에 ‘물 자

체'가 아닌 그곳에 축적하고 있는 '콘텐츠 자체(content itself)'만을 강조하게 되면 전자의 논리가 합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문화 선진국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후자는 19세기 초 독일에서 도서관 기술의 과학성을 기초로 함은 물론 근대 문화생활의 관점, 특히 국민 경제와 관련 또는 역사 철학적 관점을 더해서 도서관 학의 과학으로서 본질을 형성한 것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관념론과 유물론적인 발상은 사회 인식론과 지식 사회학의 관계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하다. 지식 사회학은 사상 또는 지식에 대해서 사회조직이 부여하는 영향을 논하는 것이고, 그래서 문화 인류학자가 주목하는데 반하여, 사회 인식론은 지식에 미치는 사회의 영향이 아니고, 지식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념형적인 구분이나 논리는 차치하고 문헌정보학에서는 공간과 장비, 저장매체 등의 '물리적 구성요소(physical component)'와 어떤 자료를 수집할 것인지의 수집 방침과 이를 어떻게 검색할 수 있게 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자료 구성체계 등의 '지적 구성요소(intellectual component)', 그리고 이러한 물리적 구성요소와 지적 구성요소를 통정하고 이용자들의 정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인력(man power)'을 전통적으로 도서관의 3대 요소로 인식한 것은 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유물론적인 접근법에서는 보존·보관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으며, 반면에 관념론적인 측면에서 도서관 자체를 인식하는 면에서는 도서관 4요소 중 가장 중요한 이용자를 제1의 요소로 간주한다. 그래서 이용자 지향적인 정보 환경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정책의 우선 순이 된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 구성원들처럼 도서관을 포함한 사회기관들 역시 수행하여야 할 역할이 있으며, 그 경계선은 문화나 그것이 구성되어 있는 제도에 의해 설정된다.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일부분으로써 전통적인 도서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달'하는데 있다. 물론 도서관이 다른 문화체제의 가치들도 전달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마땅히 해야 하지만, 만일 그 자체문화의 가치체계와 행태가 지나치게 거리가 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Shera는 도서관과 개인, 도서관과 사회, 도서관과 지식을 연관시켜 볼 때 개인과 사회, 사회와 사회조직, 사회조직으로서의 도서관은 사회적 기억(일종의 사회적 정신력)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개인적 기억은 어느 곳 어느 때나 연상이 될 수는 있지만, 계속성이 없고, 정확성이 항상 문제가 되어 만인의 공유가 어렵지만, 이에 비해서 사회적 기억은 그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수집되고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었을 때 훌륭한

사회적 유산으로서 개인의 학습을 돕고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도서관은 '인간의 기록지식을 사회적 기억으로서 체계 있게 조직하여 제공하는 사회기관이다'. 즉 도서관을 사회제도가 아닌 '사회기관(social agency)'으로 인식하였다.

Butler도 도서관에서 문화의 전달이라는 하는 뛰어난 출발점을 구하고 있다. 그는 『도서관의 문화적 기능』에서 도서관을 문화의 영역에서 가치를 높게 부여하고, '인간의 의식에서 불변의 외형에 투영한 관념의 체계'라고 인식하고, 모든 인간의 의식에 균등하게 강렬하게 영향력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도서는 혼돈된 우주이지만, 도서관은 이것을 평가하여 정리하고 그래서 '도서 우주의 성좌표'로서 문화의 유지발전에 공헌한다고 하였다. 도서관은 근대문명의 실제적 요청에 의하여 창설된 것이다. 현재에 있어서 그것은 사회조직상 하나의 불가피한 구성단위가 되고 있다. 문화는 개체를 초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은 문화란 것은 본질적으로 '잠재적으로 소유하는 경험의 사회적 축적'이다. 그래서 그는 "도서는 종족의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사회적 메커니즘이며, 도서관은 이를 현존하는 개인의 의식에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사회적 기구(social apparatus)'이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Shera의 '사회기관'으로서의 도서관 관(觀)과 Butler의 '사회적 기구'로서의 도서관 관은 동일한 의미

선상에서 해석된다. 사회기관 또는 사회적 기구는 어떤 기관이든지 사회적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출발점에서 Shera는 도서관의 본질을 추구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그래서 도서관을 하나의 '대상'이 아닌 '개념'으로 인식하고 그것도 사회적 인식으로 본 것이다.

3.2 Shera와 Gates의

『도서관학 개론』 비교분석

1976년에 출판된 Jean Key Gates와 Jesse H. Shera의 『도서관학 개론』서를 상호 비교해 보면 대조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대단히 흥미가 있다. 두 저서에서 도서관을 사회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이론적 배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들 서지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Gates, Jean Key. *Introduction to librarianship*. 2nd ed. New York, McGraw-Hill, 1976. xi, 288p. 23cm.

Shera, Jesse H.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 basic elements of library service*. Littleton, Col., Libraries Unlimited, 1976. 208p. 23cm.

상기의 두 개론서는 1976년에 동시에 출판되었지만, Gates의 개론서는 1968년 초판의 개정판이다. 그 개정에 맞춰서 초판 발행 이래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100여 개의 도서관학교에 개정판에 대한 질문을 보내서 의견을 묻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했다고 서문에 기술하고 있다. 그것

은 100여명 이상의 실제 교육 체험자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저자도, 개인적 이용자도, 세론도 평가가 달랐다. 서문에서 “저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토픽도 생략되었다”. 또는 “독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가 생략되기도 하고 부당하게 논의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Gates 1976, x). 그것은 “이 넓고 또 급격히 확대되는 분야의 전모”에서 전부를 다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해 Gates는 세론에 따라 서설의 목표와 구성을 결정하고 부족한 점은 참고문헌에 의해 독자로 하여금 보충하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Gates는 그가 개론서에서 의도하는 있는 다음과 같은 3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역사적 배경의 기본을 학생에게 이해하게 한다.
2. 도서관의 목표, 서비스의 필요성 이해
3. 직업 지향자로서 도서관학의 평가

이상과 같이 Gates는 과학의 본질에 대한 서론적 에세이로 시작된 이 저작은 라이브러리언십에서의 3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는데, 그것이 사회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역사학적 관점이다. 즉, Gates의 3부는 1) 역사, 2) 전문직, 3) 그 종류와 서비스로 구성하고 전문직의 윤리, 자유의 권리와 참고문헌을 부록에 첨부하고 있다. 이 구성은 역사에 상당한 중점을 두어 시대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1876년을 현대의 기점으로 잡고 있다.

Gates가 강의자료를 제공해서 교수들이 강의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 동안에 Shera는 학생을 입문시키고, 풍부한 정보를 섭취하게 하고 장래 사업에의 결의와 식견을 부여하려고 노력하였다. 그가 목표로 하고 있는 개론서는 물론 입문적인 자료가 아니고, 도서관학에 대한 학생들 식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정보화 시대의 도서관 네트워크의 담당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론서임과 동시에 정보화 시대의 도서관 패러다임을 기록한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통론, 개론, 서설 등 그 명칭이 어떤 것이든 차치하고, 도서관학의 선진자가 후진자를 위해 저술한다면, 입문임과 동시에 결론이며, 결론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자의 성격이 새겨져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한편 Shera는 도서관학 개론서의 프롤로그의 라이브러리언십에 대한 3개의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Shera 1976, 9).

1. 장래 사서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입문을 위한 저서, 거기에다 논의되는 일에 의해 “그 시야를 넓게 하는 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이 책은 “도서관학 철학”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업을 위해 도서관학의 깊이, 풍부함 및 포괄성의 서약을 의도한다.
3. 이 책의 목적은 도서관학철학도 도서관기술의 요약도 아니고, 도서관학을 이루는 사람의 식견을 준비하게 하고 도서관원의 경력을 선택하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Shera는 도서관학과 도서관

관학에 대해서 세 단계로 생각하고 있다. 첫 번째는 입문서로서 도서관학을 깨닫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도서관학을 인식한 학생에게 그 깊고 풍부한 내용을 깊게 이해시키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는 도서관학의 식견을 준비하고 도서관 사업에 일생을 맡기는 것이다.

그런데 Shera의 개론서는 완전히 새로운 구성으로 정보과학에 치우쳐 있다. 8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제1장 도서관사(보스턴 공공도서관 설립까지), 제2장 도서관과 사회(도서관론으로 커뮤니케이션, 자료수집, 알 권리, 어린이와 도서관), 제3장 독자와 도서관 매체론, 제4장 도큐멘테이션 원론, 제5장 새로운 키의 라이브러리언십(국가 종합목록과 정보과학), 제6장 구조, 조직(전문직의 문제), 제7장 교육과 연구(도서관학의 교육과 연구), 제8장 도서관과 정보서비스(전국적 네트워크)와 도서관론에 정보과학을 조직해 넣은 것이다. 이 구성은 Gates처럼 세론을 참작한 것이 아니라, Shera 자신의 철학이고, 70년의 경력에서 솟아나는 선각적 신념에 의한 구성이다. 이 책의 헌사에서 세라는 '이 책을 30년 이상 나의 강의실을 채워준 학생들에게 바친다'라고 기술해주고 있다. 이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의 철학성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미국의 철학 주류인 실용주의적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두 저서 모두 사회적 인식에 근거하고자 노력한

것은 유사하다.

또한 Shera에 의하면 "도서관학은 사회과학으로 분류해야 하지만, 도서관 사업은 본래 인문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인 것이라고 논하고 있다". 나는 도서관 개선에 과학이 기여한 은혜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몇 세기동안 도서관을 형성해 온 인문주의의 가치를 잊어버린 것은 아니다. 그것은 지도의 의미를 유지하고 우리들이 현재 알고 있는 대로의 장서를 구축했던 것이었다. 도서관은 도서와 사람의 양자이고 그 의미에 있어서는 인문주의적 사업이다.

Shera는 이처럼 한편으로는 정보과학의 선두에 있었던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르네상스 이래의 인문주의의 부흥을 잊지 않았다. 이 폭넓고 깊이가 심오한, 그리고 해박한 두뇌로 서론이기도 하면서 결론이기도 한 이 개론서가 완성된 것이다. 혹은 완성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1970년에 발행한 『라이브러리언십의 사회학적 기반』은 Shera의 학설의 종합적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후, 도서관학 교육이론이 전개되고, 정보과학의 비약적 발전으로 제3세대에 들어갈 즈음에 더욱 더 종합적 이론으로서 이 개론서가 발표되었다. 한 작품마다 스케일을 크게 해 가는데, 그 진보는 끝이 없었다.

한편 상기의 두 학자가 저술한 개론서와 같은 영향을 기친 Butler도 시카고 대학 도서관학 교수로써 1933년에 『도서관학개론』을 출판하였다. 그는 사서 집단의

이론적 무관심을 지적하면서 '사회활동의 다른 분야의 동료와는 다르게 사서들은 불가사의하게도 이론과 철학에 무관심하다. 사서는 분명히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높다. 기술적인 시말을 합리적으로 놓고 그것에 지적 흥미를 만족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다.' '도서관은 인류의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사회적 메커니즘이며, 도서관은 그 인류의 기억을 현존하는 사람들의 의식에 이전하기 위한 즉, 사회적 장치이다.' 과학적 지식으로 이러한 복잡한 사회기관인 도서관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서관학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Butler는 사회적·과학적·심리적·역사적인 면에서 도서관이라는 사회적 장치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가 말하고 있는 바처럼 도서관을 학문적으로 종합하려는 시도이며, 기술적인 면을 버리고, 도서관이론에 발을 디딘 최초의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그의 『도서관학 개론』에 있어서, 사회적 문제, 역사적 문제를 두 개의 장에서 논하게 되면서 사회학적인 형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빅토리아 왕조 시대의 시가 읽혀지지 않은 까닭에 화학 전문서를 사게 되고, 개혁을 할거라고 비난하여 '상술한 것처럼 알게 된 성격이라든지 행동의 어느 것에 시설이 응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데는 모든 직업적 예지에 의해 명명된 하나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도서관을 문화 사회학으로서 연구하

는 일은 도서관의 각 시대, 각 민족의 귀중한 문화전승현상의 깊은 통찰에 의해 인식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들의 득실을 발전단계에 있어서 분석해 올바른 평가를 부여하여, 그것을 통해 사회학적인 법칙을 세우는 일에 의의가 있다.

3.3 Shera의 도서관 이미지론 및 사서의 '像'

본 절에서는 Shera가 인식하고 있는 도서관 이미지론과 사서의 상을 중심으로 기술하려고 한다. 그는 기본적으로 도서관을 '사회적 기관'으로 인식하고, 사서의 상은 인문학적 기반위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이미지도 분명 사회 인식론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들의 주된 업무 내용은 지식이기 때문이다.

3.3.1 도서관 이미지론

도서관은 사회적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창조되었으며, 그것의 발전이 지식의 역사뿐만 아니라 문화를 지탱해 주는 가치체계에 및 조직 구조에 있어서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당시 사회적 기관(social instrumentality)으로써 도서관이 항상 그래왔듯이 그것이 기능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 의해 통정되고 형성되었다는 것은 자명하다. 사회는 도서관의 수탁자이므로, 도서관은 사회에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도서관이 어떤 모습이며,

또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사회 자체의 본질과 그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문화 및 가치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Shera 1976, 42)고 주장한다.

인류는 수세기에 걸쳐 각 시대가 그 당해 기간 동안의 지적 습관과 전통적 가치를 보존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그 기간을 문자화한 기록물을 만들고 이용했다. 그래서 “도서관은 축적된 경험의 결과가 너무 방대해져서 인간의 기억 용량을 초과하고 그 경험의 기록이 더 이상 구전(口傳)을 통해 존속되기 어렵게 되었을 때 만들어진 사회적 발명(social invention)이다(Shera 1976, 13). 이러한 논리는 결국 사회와 도서관과의 관계성은 비례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의 사회성’과 ‘사회적 도서관성’은 항상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문화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문명사에 있어 씨줄과 날줄인 문화적 동향은 도서관, 그 기록물(장서)의 본질, 그 기록물이 조직되어 지고 관리되는 방식, 그리고 도서관이 수행했던 서비스 등을 구체화 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수메르와 니네베의 점토판과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로부터, 중세 수도원의 빈약한 설비와 초기 학교의 교본들로 이루어진 장서를 거쳐, 현대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공 도서관과 오늘날의 디지털도서관에 이르기까지, 도서관은 지속적으로 변모를 감내해 왔고 그 각각은

동시대의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사회적 전형(典型)에 있어 모든 주요 변화는 도서관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불변의 요소로 존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도서관이 갖고 있는 제도적 일관성(*institutional coherence*)이다(Shera 1976, 13).

Butler도 전술한 바처럼 “도서관은 인류의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사회적 메카니즘이며, 도서관은 이를 현존하는 개인의 의식으로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사회적 기구(social apparatus)이다.”(Butler 1933, xi).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곧 도서관 존재개념을 사회적 인식론에서부터 개념화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모든 도서관이 영원히 가치 있을 수는 없으며, 심지어 전혀 가치가 없는 책들도 많이 존재한다. 가장 위대한 도서관이 “불멸”한다. 인간처럼 도서관들도 죽을 “권리”를 가진다(Shera 1976, 55)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 구성원들처럼 도서관을 포함한 사회기관들 역시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그 경계선은 문화나 그것이 구성되어 있는 제도에 의해 설정된다.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일부분으로써 전통적인 도서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것이다. 물론 도서관이 다른 문화 체계의 가치들도 전달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마땅히 해야만 하지만, 만일 그 자체문화의 가치체계와 태도와 지나치게 거리가 있을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때 도서관은 Thomas Kuhn의 용어를 사용한다면 특정 “세계관(world view)”인 어떤 “패러다임”을, Kenneth Boulding의 용어로는 “이미지”를 반영한다. 그러한 패러다임 또는 이미지는 그 문화 내에서의 변화에 반응하는 시간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데, 그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없는 도서관은 더 이상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며, 문화는 그것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Shera 1976, 49).

Shera는 사회적 도구로서 도서관은 그것이 세워진 사회와 문화로부터 그 형태와 목적을 갖게 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도서관을 “사회적 도구”로 규정한 것은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도서관의 관심사항인 기록자료(graphic records)를 보존, 정리, 배포함으로써, 과거나 현재에 있어 한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의 일부분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1945년 이후 UNESCO나 IFLA같은 국제 기구는 전세계적으로 라이브러리언십이나 도서관 발전에 관한 세미나를 지원해 왔다. 세미나가 늘어나고 “보고서”나 “회보” 등이 발간되면서, 한 사회의 도서관의 역할이나 정보서비스의 특징 등은 기술발전 수준이나 정치, 경제적 이데올로기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가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Shera 1976, 158).

이는 Ranganathan 『도서관학 제5법칙』에서 다섯 번째가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

기체이다’라는 것과 상통되는 논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으로 보지 않고 개념적으로 인식한 것이다. 성장하는 유기체가 홀로 살아남을 것이라는 것은 용인된 생물학상의 사실이다. 성장을 멈춘 조직체는 돌처럼 굳어지고 사라질 것이다. 제5법칙은 기관으로서 도서관이 성장하는 유기체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준다. 성장하는 유기체는 새로운 물질을 받아들이고, 오래된 물질을 버리며, 크기를 변화시키며, 새로운 모양과 형태를 취한다. 변형을 포함하는 갑작스럽고 명백하게 불연속의 변화는 그렇다 하고, 그것은 생물학적 어법에서 ‘변이’로 알려진 것과 새로운 형태의 진화를 이끄는 느리고 계속적으로 변화되기 쉽다. 이 변화는 느리지만 효과적이어서 진화의 주인공은 변화의 계승적 단계에 의해, 창조-인류의 가장 구별되는 종으로 스스로 전환되는 고생대 시대의 모양이 구별되지 않는 원생동물이라고 주장한다. 형태의 모든 변화를 통해 유지되는 것은 삶의 필수적인 원칙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도서관에 있다.

3.3.2 사서의 ‘像’

교육자, 철학자 그리고 이론가였던 Shera는 라이브러리언십이 ‘대상물’이 아니고 ‘개념’으로 정립시킨 것이 이 분야에 있어서 그의 가장 중요한 공헌이다(Shera 1983, 384)라고 전술한 바 있다. 즉, “총체론적으로서 라이브러리언십의 개념, 모

든 사실의 조화성은 상호 연관적이며 의존적이다라는 것이다.”(Kaltenbach 1986, 762). Shera는 도큐멘테이션과 정보학이 라이브러리언십의 전체 중 필수 요소이며, 라이브러리언십이 포괄적 용어이며, 그리고 정보학은 사서들의 경영을 위한 이론적 지적배경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사서들의 역할에 대해서 그의 느낌은 인간과 인간들의 기록 자료물간의 중재자로서의 행위, 그리고 ‘사서들의 목적은 인류의 이익을 위해 기록자료물의 사회적 유용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Shera는 그의 『도서관학개론』에필로그에서 사서의 상을 다음과 같이 이미지화 하고 있다. “나는 좋은 사서의 자세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장서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이해력이고, 두 번째는 그 자료들을 유용하게 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이용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머감각입니다(Shera 1976, 196-200). 이들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라이브러리언십은 문화 그 자체로 유지되는 방식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한 요소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없이는 문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은 만일 무언가 전달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없다면, 단순히 게으른 수다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서는 만일 그가 가치 있는 커뮤니케이터가 되길 원한다면, 가장

먼저 지식의 본질적인 분야에 숙달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서는 가장 폭넓은 감각의 학자이어야 합니다. 훌륭한 사서를 상징하는 ‘책에 대한 애정(love of books)’이 아니라, ‘학문에 대한 사랑(love of learning)’, ‘지식에 대한 사랑(love of knowledge)’, 그리고 ‘진실에 대한 헌신’(devotion to truth)입니다(Shera 1976, 197). 내가 이 직업을 택하였을 때, “책을 읽는 사서는 사라졌다”라는 신조가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서가 종종 책의 겉만을 훑고, 알뿐이고, 그 내부에는 무엇이 들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비난받는 일에 대해 작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겉 훑기식의 무지”보다 나은 무언가를 가져다주기를 희망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은 라이브러리언십에 대해 장고할 수록, 도서관 교육에서 특히 라이브러리언십이 90퍼센트의 주제, 본질, 지식과, 10퍼센트의 업무에 관한 기술로 이루어졌다고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본인은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전문교육을 받은 모든 사서가 그 자신이 자신의 장서에 대해 무엇으로 이루어져있는지, 무슨 목적으로 가장 잘 이용이 되는지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도 얼마나 성공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이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에서 총장직에 취임하였을 때 이중학위 프로그램에 대해 찬성했던 것은 정확히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최소한

케이스 리저브에서는 수년간 시행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앞장섰었던 것입니다. 본인은 여러분이 마음의 끈기를 증진시키는 자료에 대해 여러분의 지적인 힘을 훈련하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본인은 또한 당신이 최소한 하나의 좋은 주제 분야, 그 분야에 대한 자료의 구성, 획기적인 저술들, 앞으로 더 채워야 하는 부족한 부분 등에 대한 이해를 획득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모든 지식은 사서가 그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사서나 그의 후원자에 의해 작게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책은 이용하기 위해 존재하고, 모든 책은 독자가 있으며, 모든 독자에게는 책이 있다”라고 Ranganathan은 도서관학 5법칙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소 가치나 그 밖의 다른 가치로 인해 자물쇠와 열쇠로 잠궜고 보관에 대한 엄격한 규칙 하에서만 활용되어야 하는 어떤 서지적인 보물도 있습니다.

훌륭한 사서는 도서관과 인류 모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그렇다고 당신이 시골오지의 어둠에서 진실의 빛을 가져오는 임무를 가져야 한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의 고객이 원하는 것을 충족하지 못하고 좌절할 채로 도서관의 문을 떠나지 못할 때 그것은 중요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방식으로 이용자들을 맞이하고, 당신 자신의 수준에서 그들과 커뮤니케이션하

고, 당신의 위치로 당신 스스로를 두며, 그들의 문제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모든 도서관의 고객은 그들 자신의 눈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인 것이고, 그는 자신의 요구, 문제, 희망, 야망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사서는 전문적인 책임감을 채우기를 원한다면, 그 고객과 공감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서라고 해서 신의 통찰력까지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불유쾌한 업무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길 수도 없습니다. 훌륭한 사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훈련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그가 어떤 일을 매우 잘했을 때도, 중국 철학자인 노자의 이야기 “좋은 지도자는 적게 말하고 많이 행동한다. 그리고 자신의 일이 끝났을 때, 그의 일이 성취되었을 때, 언제나 ‘우리가 해냈다’고 이야기한다.”라고 한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나는 훌륭한 사서가 되기 위한 3번째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나의 친구들이 나에게 이야기 해주었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유머감각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그것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유머감각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투시하는 감각이며, 친근하게 느껴지는 감각이며, 우선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지식의 기록에 대한 속지는 다른 사람에게 그 지식을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이며, 유머감각입니

다. 이것들은 도서관이 사회적인 구조로써 위치하기 위한 3가지 중요한 기둥입니다. 나는 여기서 지식인으로서의 사서, 학자로서의 사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서는 좋은 선생님처럼 그의 보조자를 찾는 사람의 지적인 인생의 개발과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상에서처럼 훌륭한 사서의 상을 장서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이해력이고, 두 번째는 그 자료들을 유용하게 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유머감각을 들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인문학적 기반위에서 사회학적 인식으로 접근하려는 그의 의도로 볼 수 있다.

4 사회 인식론과 도서관

라이브리언십에 대한 사회학적 인식에 대해 Shera가 어렵פות한 인식과 흥미를 갖게 된 것은 Warren S. Thompson이 예일 대학에서 제출한 그의 학위 논문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1938년에서부터 1940년까지 시카고 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작업에 영향을 미쳤다 (Kaltenbach 1986, 763). 그래서 전문적인 훈련과 교육을 거치지 않고도 Shera는 그가 하고자 하는 대로 도서관 업무에 부딪혔다. 그는 문화적 기관으로서 도서관은 그 전통적인 역할, 즉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있어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그 전파

(전달)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 기능의 패러다임으로서 지식을 들고 있다 (Shera 1970, 93).

본 장에서는 도서관과 도서관학의 사회적 전개와 Boulding의 이미지론, 그리고 Shera의 사회 인식론을 중심으로 전개시키고자 한다.

4.1 도서관과 도서관학의 사회학적 전개

미국에서는 Dewey적 도서관학 시대와 Williamson 시대와의 교체를 1923년으로 보고 있다. 그 해 『윌리엄슨 보고서(Training for library service)』(Williamson 1923)가 제출되어 도서관학이 대학에 소속되면서 대학으로부터 고립한 형태의 도서관학교를 객관적 데이터에 기초해서 충격적 비판을 가했다. 이 보고서에 기초해서 1926년에 컬럼비아 대학, 1928년에는 시카고 대학에도 학과가 신설되어 도서관학 대학원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출판된 대표적 저작으로서 1933년에 Pierce Butler의 『도서관학 개론』이 발행되었으며, 이는 시카고 대학 도서관학교를 대표하는 의견으로 당대의 학장이었던 Louis R. Wilson은 보고 있다. 본서의 서문에도 “Butler는 자신이 생각하는 과학의 본질을 설명하고, 근대 도서관을 하나의 중요한 ‘사회기관’으로 인식하고, 게다가 적합한 봉사정신과 방법으로 어떻게 문제가 연구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 점에서 본서는 본 대학원이 이

루어낸 도서관학에 대한 시도를 반영하고, 본 대학원이 도서관 문제의 연구, 조사에 맞춰 채택한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다”(Butler 1933)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본서는 “도서관의 규칙과 정리법을 다루는 초보의 입문서는 아니다”(Butler 1933)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직접 도서관학 개론서로서 논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도서관학 철학으로서 새롭게 도서관학 연구법의 도입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이 시기에 시카고 대학에서의 이러한 구상이 갑자기 출현한 것은 아니다. 이 무렵에는 이미 사회학적 연구조사법이 도서관계에 도입되었다. ALA는 당시 세인트루이스 공공도서관장이었던 Arthur E. Bostwick을 위원장으로 하여 전 연방내의 도서관 서베이를 행하여 그 결과를 1926년에 발표했다. 같은 해 J. L. Wheeler의 『*The library and the community*』가 발행되었다. 1929년에는 교육 심리학의 입장에서 William Scott Gray와 Ruth Munroe공저의 『*The reading interests and habits of adults*』도 발행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서가 출현한 것은 연구방법에서 사회학적 접근법이 적용된 결과물이다.

시카고 학파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과학의 한 과학으로서 도서관학의 연구가 진행되고, Leon Carnovsky, Louis R. Wilson, Douglas Waples, Robert D. Leight, Bernard Berelson 등의 저서와 논문이 속출했다. 또 아동 도서관, 학교 도

서관으로부터 대학 도서관, 전문 도서관 등 공공 도서관 이외의 분야에 연구가 확대되고 있었다. 그것은 전후 도서관계가 직면한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채택한 정책과 수단에 의한 것이었다. 또 과학기술의 발전속도에 응해서 도큐멘테이션의 가속화가 일어나 도서관에서 도큐멘테이션의 개척자가 된 학자들도 출현했다. 그 중에서도 걸출한 업적을 남긴 학자들은 Ralph Shaw, Mortimer Taube, Calvin Mooers, 영국에서는 James W. Perry, S. C. Bradford, B. C. Vickery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학자들의 노력으로 인해 정보학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발전기에는 도서관학 개론과 같은 종합적 저작은 노력한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이유는 오늘날의 종합이 내일은 회고가 되기 때문이다. 1950년 영국에서 E. V. Corbett가 저술한 『*An introduction to librarianship*』이 발행되고, 증정판이 1966년에 출판되었지만, 그것은 그저 보통의 입문서였을 뿐이다.

60년대 말에 ‘도서관과 사회’에 관련된 저서들이 영국에서 또한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K. C. Harrison의 1966년의 제2판 『*The library and the community*』와 G. Jefferson의 『*Library and society*』가 1969년에 출판되었다. 이보다 조금 늦게 R. C. Bengel의 『*Libraries and cultural change*』이 1970년에 발행되었다. 미국에서도 B. Landheer가 저술한 『*Social functions of*

libraries』이 1957년에 출판되었고, John T. Eastlich 편으로 『The changing environment of libraries』이 1971년에 출판되었다. 이처럼 영미에서 도서관과 사회와의 연구가 집중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문헌정보학 초기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개설되지 못하다가 1970년대 이후 교과목으로 나타난 것과 흡사하다. '사회적 기관'인 도서관을 사회적으로 규명하려는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와 동일시기에 Gates의 『Introduction to Librarianship』이 1968년에 출판되었다. 이의 개정판이 출판된 1976년에 Shera의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이 발행되었다. 이와 같은 동종의 개론서가 동년도에 출판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다. 영국의 60년대는 문화정책의 변혁의 시기임과 동시에 도서관 확대의 마무리시기에 해당된다. 주립 도서관이 전국에 설치되어 지역 도서관 시스템이 완성되어 국립 중앙도서관과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지역간 주제목록도 1959년에 개시되고, 전국 네트워크가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당연히 도서관과 사회를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시기였다.

미국의 전후는 ALA의 주창에 응한 카네기재단의 20만 달러의 보조금으로 『사회과학 연구위원회』가 1947년 5월에 설립되고, Robert Reight가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전국적으로 공공도서관 조사를

시작하여 그 다음 해 조사를 마치고, 1950년에 『미국에서의 공공도서관』이라는 보고서가 발행되었다. 그것에 기초해서 ALA의 공공도서관 부회는 공공도서관 기준을 1956년에 『공공도서관 서비스』라는 제목으로 발행하였다. 정부도 여기에 응해서 같은 해 공공도서관법을 제정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해 주었으며, 그 규모는 확장되어 1965년에 고등 교육법과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서 대학 도서관 이하 전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보조금이 증액되었다. 게다가 1966년에는 『공공도서관 시스템을 위한 최소기준』이 발표되고, 주립 도서관의 발전에 의해 시스템화가 시급한 업무가 되어 마침내 1970년에 『문헌정보학 국가위원회』가 설립되고, 국가적 계획을 완성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도서관계 대변혁의 시기에 맞춰 여러 개의 도서관학 개론이 출판된 것은 큰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학 교육도 5년제가 보편화되고, 상급 수준의 종합적 시야를 갖게 할 필요성을 느낀 것도 이러한 시대적 조건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4.2 Boulding의 '이미지론'의 인식론

Shera의 사회학적 인식론의 이론은 Kenneth E. Boulding의 이론을 차용한 것이다. Boulding은 과학적 인식론을 1961년에 저술한 그의 『이미지론』(Boulding 1961)에서 논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

하면, '지식에 관해 논함에 있어 '사람은 세계의 이미지(개념, 영상)'로 지식 전체를 논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식은 타당성과 진리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진리라고 믿는 것이다. 대체로 나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이미지이다. 두 번째로 그는 지식은 타당하고 진리이어야 하고,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논하고 있다. 셋째로 이미지의 기원을 인간의 경험에서 논하고 경험은 우리들의 감각을 통해 전달된다. 이미지가 사람에게 도달될 때는 언제라도, 그 이미지는 그것에 의해 약간씩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지가 변화하면 그 행동의 형태는 똑같이 변할 것이다. 정보는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의미이고, 메시지는 정보로부터 성립된다. 메시지의 의미는 이미지 안에서 그것이 생기는 변화이다(Boulding 1961, 5). 다시 말해, 이미지, 메시지, 정보와 경험과 행동의 관계가 결론이 되어 그 순환논법이 성립하는 것이다.

영상에는 개인 이미지와 공공 이미지가 있는데, 공공 이미지는 집단 속의 사람들이 나누어 가지며 그 이미지와 동일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개인적 가치 시스템은 거의 동일해야 한다. 그래서 공공 이미지는 개인에 의해 나누어 갖게 되는 본질적인 것이다(Boulding 1961, 71). 공공 이미지는 각 사회의 결합에 의해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되어 보존된다.

마지막으로 지식의 인식론을 논하고 있

다. 그는 소박한 이미지에서 공공 이미지를 검토하여 가장 안정된 이미지를 선험적 이미지라 하고 있다. 또 이미지를 메시지의 피드백으로 확증하고 과학으로 향한다. 과학의 실증주의는 고대부터 이미지를 잠식해 왔다. 과학은 그 고유의 문제를 사실로 인정한다. 사실은 객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치는 주관적인 것이라야 한다. 어째서 가치는 주관적일까? 그는 경험론의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인과관계에 좌우된다(Boulding 1961, 171). 가치는 경험의 결과로 보는 것이어서 인간적 회의론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 지식이론으로 원용한 보울딩의 '이미지론'은 사회적 이미지의 형성과정을 학제적으로 연구한 문제제기의 책으로서 사회인식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4.3 Shera의 사회인식론

사서가 해야 할 본연의 연구는 집합적으로든 개별적으로든 인간이다. 시카고 대학교 도서관학 대학원의 Douglas Waples는 한 세대 전에 독서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연구주제에 여러 해를 바쳤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 이상은 결코 할 수 없었으며, 내가 후에 사회인식론(social epistemology)이라고 불렀던 새로운 학문 분야의 기초를 생각해 낼 수 없었다. 이 용어에 의해 Shera는 새로운 연구 또는 학문을 제안하였는데, 이것은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오래된 분야를 재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그 자체에 관한 지식

의 본체를 연구하는 것이다. 어떻게 지식이 발전해가며 증가해 왔는지에 대한 것이 특히 철학자들에게 오랫동안 연구의 주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어떻게 지식이 조합되고 통합되어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것은 여전히 거의 인식되지 않은 연구 분야로 남아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는 과학적 방법의 형식화와 논리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과학적 지식이 어떻게 축적되어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달되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분야에서 과학사자들의 도움이 상당히 컸다. 철학자들은 오랫동안 지식의 본질, 원천, 방법론, 타당성의 한계에 대해 연구해 왔다(Shera 1976, 49).

Shera는 사회학적 입장에서 지식을 논하고, 인식론이란 말할 것도 없이 순수한 의미에 있어서 '지식 자체에 관한 지식의 연구이다'. 고로 사회 인식론은 사회에 있어서의 지식의 연구이다(Shera 1970, 85). 그러면 그 연구의 입장과 대상과 방법론은 어떤 식이어야 하는가? 그의 주장을 빌리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에 있어서 지식과정의 성질의 전체적인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기본 틀을 구성할 준비.
2. 사회적이고 전체적 환경의 투시적 관계에 전제로서 사회가 도달하는 방법의 연구.
3. 지적 생활의 연구는 개인의 연구에서 사회, 국민, 또는 문화가 더해지는 자극의 총량적 이해에 달하는 경우의 수단 연구에까지 끌어 올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
4. 사회적 전 조직을 통해서 전달된 사상 전체형식의 생산, 유통, 통합 과소비, (연구의 초점).

5. 지식에 관한 지식의 신 연구, 지식과 사회활동의 신 통합 명제의 제기, (연구의 전개) (Shera 1970, 85)

그는 사회적 인식론은 '지식에 관한 지식의 연구'이기 때문에 미시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 본거를 어디에 놓아야 하는가 하면 많은 연구분야에 걸치기 때문에 학제적 연구라고 한다. 특히 사회학과 문화 인류학과와 관계가 깊다. 그 외에 언어학, 경제학, 심리학, 신경생리학, 정보이론 등과의 연관성을 갖고 있다.

Shera는 사회 인식론을 응용하는데 열심이었는데, 그 인식론을 심층적으로 접근해 갈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았다. 이론에 대해서는 Boulding으로부터 발전시키고 커뮤니케이션론에 전개시키고 있다. 그는 Boulding의 이미지론을 긍정한 다음에 'Boulding이 말하는 사회인식론' (social cognition)의 과정은 사회적 인식론(social epistemology)에 극히 접근해 있다고 생각하였다(Shera 1970, 94). 특히 가치 조직을 통해서 제 이론 또는 인식의 대상이 지나쳐서 인간에 소유되는 점을 들고 있다.

1956년에 카네기재단의 지원에 힘입어 16년 동안이나 연구한 결과 1972년에 발행한 Shera의 대 저작인 『라이브러리언십 교육의 기반』은 그의 박사논문 후 50-60년대에 형성시킨 그의 도서관 이론을 집약시킨 저서로서 매우 의미가 크다. 이것은 사서들을 양성하는 지적기반 전반을

탐구한 책인데, 전반부에는 도서관을 형성하는 사회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으며, 후반부에는 교육에 관한 역사와 교과과정, 제도 등을 논한 실천적인 내용이다. 특히 전반부의 최초의 4개장은 도서관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사회적 상황에서 발생되었는가를 설명한 그의 도서관 이론의 결정체가 되는 부분이다. 전반부의 4개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은 '커뮤니케이션과 개인인데, 도서관이 인간과 기록 자료를 연결하는 큰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중 가운데 위치한 것으로 전제하고 인간의 뇌 내의 정보처리를 시작으로 행동의 동기뿐만 아니라 학습, 언어,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을 검토하고, 그리고 최후에 독서를 검토하고 있다. 제 2장은 '사회와 문화'라는 제목이다. 문화 인류학과 사회학의 지식을 원용하여 도서관이라는 문화적인 사회제도의 성립기반을 연구한 것이다. 마지막에 도서관과 인연이 깊은 학술 커뮤니티의 성립과 사회적 기능을 검토하였다. 제 3장은 상기의 두 개의 장을 마무리 짓는 의미에서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사회통합과정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를 구명하고 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의 연쇄 과정 속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역사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3장을 '커뮤니케이션, 문화 그리고 도서관으로 장제를 설정하고 있다. 제 4장은 상기에서 언급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도서관학 사회인식론』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회 인식론과 그 자신이 명명한 새로운 디스플린(discipline)을 제시하고, 도서관 연구가 그 가운데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디스플린은 사회에서 지식의 전달이나 배포 등을 연구하는 분야이며, 그의 주장에 의하면 종래의 지식사회학은 사회, 특히 경제적인 조건이 지식의 상태를 규정한다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것은 역으로 지식이 사회조건에 미친 영향을 문제로 삼고 있다. 그는 도서관 기초론을 시도하면서 이와 같이 심리학-문화인류학-사회학을 기반으로 하고, 지식학에 이르기까지 높이려고 하였다. 그래서 도서관을 사회적 기관으로 착상하고 사회와의 연관성에서 그 기반을 규명하려고 시도하였다. 사회가 요청하는 다양한 기능을 부과하기 위해 사회제도의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사회기관이 존재한다고 하는 전형적인 기능주의적 접근이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법이라고 하는 사회제도의 기관이 재판소이며, 종교라고 하는 사회제도의 기관이 교회인 것처럼, 도서관이라는 기관이 학교나 대학과 나란히 지식이라고 하는 사회제도를 실현시키기 위한 사회기관이라는 인식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제적 논의이다. 사회학에서 이와 같은 이론 방향을 제시한 한편, Shera 자신이 구상한 도서관학 이론 구성이 사회 인식론이다. 또한 Shera는 "사서는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지식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사회가 지식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

게 하는 면을 파악하는데 진력하지 않으면 안된다”(Shera, 윤영역 1984, 77)고 강조하면서 “나(Shera)는 이 새로운 학문을 ‘사회인식론’이라고 부른다. 이말은 본인이 알기로는 Margaret Egan에 의해 창출된 말인데, ”심리학자들은 행동을 개인의 행위와 관련시켜 연구해 왔으며, 인식론 학자들은 지식의 기원, 생성, 발전을 연구해 왔는데, 그것도 개인과 관련시켜 거론해 왔다. 그러나 이 행동에 미치는 지식의 영향에 관해서는 실로 이제까지 언급한 바가 없다. 환언하면 인식론은 지식에 대한 개인의 관계영역 밖에서는 취급되지 않았으며, 사회행동 및 사회행위의 총체에 관련하여 연구된 바도 없다. 인식론이란 순수한 의미로는 지식 그 자체에 대한 지식의 연구이다. 그것은 사회에 있어서의 지적과정의 성격이라고 하는 복잡 다기한 문제에 대해서 조서연구의 골격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 즉 사회 전체가 그것을 둘러싼 전 환경에 대해서 인식관계를 성취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를 말한다(Shera, 윤영역 1984, 77-78).

“사회인식론의 가장 실제적인 응용의 한 면은 곧 도서관직에 있다. 바로 사회인식론과 도서관직 사이에는 매우 중요한 유연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무자가 그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간에 도서관직은 인식론의 기초 위에 기초를 두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식의 성질에 관계를 하며,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으로 즉 집단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 지식의

활용을 다루기 때문이다(Shera, 윤영역 1984, 80). 사회기관에 치우친 ‘기관학’이라는 인식에 대해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의 정체성을 논의하는 데에서도 중요한 담론이 제기된바가 있다. ‘도서관학’의 본질은 ‘도서관’이라는 유물론적, 또는 기관학의 시각인데 이는 100여년 이상의 오랜 동안의 담론으로 이어져 그 부적합성으로 인해 ‘문헌정보학’으로 변경된 바가 있다. 특히 Bradford에 의하면 1876년 C. A. Cutter가 그의 사전체 목록규칙에서 제기한 “편목은 기술이지 과학이 아니다”(Cutter 1876, 6)라는 명제를 본뜬 전통적인 도서관학에서 수행해 오던 서지 자료의 주제 분석보다 예리한 주제분석에 고군분투하였고 그들은 이 업무를 사서들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자기들의 활동을 ‘도큐먼트이션’으로 호칭하고 “도서관학은 학이 아니라 기술일 뿐이다(Library Science is not a science, but an art)”(Shera 1968, 60)라고 주장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담론의 결과 기관학에서 벗어나 인식론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학문의 정체성을 ‘지식’ 또는 ‘정보’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Shera가 주장한바 있는 인식론적 관점에서부터 영향을 받은 점도 많다.

Shera는 도서관과 개인, 도서관과 사회, 도서관과 지식을 관련시켜볼 때, 개인과 사회와 사회조직, 사회조직으로서의 도서관은 사회적 기억(social memory)(일종의 사회적 정신력도 포함)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적 기억(individual memory)은 어느 곳 어느 때나 연상이 될 수는 있지만, 계속성이 없고 정확성이 항상 문제가 되어 만인의 공유가 어렵지만 이에 비해서 사회적 기억은 그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서 모아지고 체계적으로 조직되었을 때, 훌륭한 사회적 유산으로서 개인의 학습을 돕고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도서관은 인간의 기록지식을 사회적 기억으로서 체계 있게 조직하여 제공하는 사회기관이며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도서관학은 사회 인식론의 기반 위에서 학문적 토대를 가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기록지식과 독자, 사서와 이용자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 이 과정에 컴퓨터의 정보처리응용 문제까지도 거론하고 있다.

Shera가 관찰한 바로는 사회 인식론이 사서에게는 기본이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의 지적 과정의 복잡성을 이해 - 어떻게 사회가 그 전체의 지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을 얻기 위해 추구하는 지에 대한 이해 - 하고 개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참고의 철학적 준거(準據)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학문에서는 전체 사회패턴에 통틀어 작용하고 있는 모든 유형의 커뮤니케이션의 결과물, 과정, 통합, 소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한 학문 분야에서 지식과 사회활동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새로운 지식체와 그들 간의 상호작용의 새로운 통합체가 출현해야 한다. 우리는 사회가 개인보다 더 많이 알고 있

음과 동시에 더 적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사서의 업무에 있어 기본이다. 사회는 지금껏 쓰여져 온 모든 백과사전의 내용을 “알고 있다.” 그러나 사회는 위대한 시의 감정적 효과나 일몰의 아름다움은 “알 수 없다.” 사회는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으며, 그 지식은 전체 사회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사서가 사회에서 책임져야 할 핵심적 역할과 사회적 기관으로써 도서관의 역할에 바로 이 질문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지식으로 무장해야만 도서관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타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앞서 제기되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한 답이 오늘날의 라이브러리언십이 직면한 큰 문제이며 그리 멀지 않은 미래까지도 지속될 것 같다.

4.4 사회인식론과 서지통정의 개념

Shera와 Egan의 1950년대 서지론의 독창성은 이것이 단순한 서지편찬의 기술적 혹은 행정적인 제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사회인식론이라는 새로운 연구분야의 발전과의 관계로 기술된 점에 있다. 사회인식론이란 ‘지식에 관한 지식연구’로 Shera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서지통정도 동일한 맥락에서 분석하였다.

즉, 서지를 지식을 얻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간주하여, 지식의 사회적인 생산 유통과정에 있어서 문헌지식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상대적으로 자리 매김 할

것을 시도한 것이다. 그들은 사회인식론을 “사회가 물질적, 심리적, 지적인 모든 환경과의 관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파악 혹은 이해에 이르는 과정의 연구”라고 정의하고 있다(Egan & Shera 1952, 132). 그리고 이 분야가 성립되는 전제로서 다음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

1. 개인은 스스로의 환경 속에서 「인식」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다.
2. 개인은 스스로의 환경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하여 스스로가 체험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통합적인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3. 많은 개인의 다른 지식을 조정함으로써 사회는 전체적으로 개인의 지식을 초월할 수도 있다.
4. 사회적 행동은 통합된 지적 행동을 반영시키면서 개인적 행동을 초월한다.

그리고, 개인의 인식을 상호 매개하는 2차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문헌 커뮤니케이션을 들고, 서지가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개인의 인식과 사회의 인식의 유통과정과의 관계에 주목하고, 그것을 토대로 서지통정 이론을 수립하려 한 장대한 시도는 그것만으로도 평가할 만하다.

확실히, 도서관이나 서지는 이러한 문헌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과정 중 어디가에 위치할 것이며 이 논고는 선구적인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Egan과 Shera는, 서지통정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하였다. 그 중 하나는 그것을 만들어내어 이용하는 도서관인과 연구자의 내부적 시점이며, 또 하나는 그것을 지적 활동 전

체라는 배경에서 보는 외부적 시점이다. 후자는 예를 들면 사회학자의 시점에 서서 그것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더 넓은 문제의 일부로 여기고, 「서지통정은 현대 문자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용구 내지 장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다(Egan & Shera 1949, 17)

4.5 Karlstedt의 도서관 사회학

1954년 Peter Karlstedt는 『도서관 사회학의 연구』(*Studien zur Soziologie der Bibliothek*)을 저술했는데 아마도 이것은 도서관 사회학을 자기의 체계로 발표한 최초의 시도일 것이다.

도서관의 사회학적 연구와 관련하여 그것이 유형 사회학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Peter Karlstedt가 방향을 제시한 것처럼, 도서관의 공개성을 제1의 요건으로 하는 것은 적합한 문제파악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유형 사회학은 이념형의 설정으로 공개성을 취하고 있지만, 그것은 도서관 문화에 어떤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에 의해 문화사상에 나타난 도서관은 어떤 해석을 받았을까? 도서관학의 연구자에 있어서는 대단히 흥미 있는 일이다.

Karlstedt는 공개성을 다음과 같이 세 요건으로 나누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보다 넓은 범위의 이용자를 위한 ‘접근의 용이성’이며, 두 번째는 그 도서관이 국가, 지역사회, 또는 그 밖의 공법에 의한 단체의 공적인 권력의 소유자를

소유하는 것, 또는 Deutsche Bucherei가 1940년 4월 18일의 법률에 의해 공법의 영조물로서 독자의 법인 성격을 규정한 것처럼 완전히 독립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공비로 유지되는 일이다'

법률학자인 만큼 조건을 드는 일은 명확하고 실수가 없다. 도서관을 규정하는 데는 사회활동의 가치, 즉 도서관의 기능과 전문적 분석에 의한 방향도 생각되지만, 그 판정은 복잡하고 공개성처럼 양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그 이념적 면을 취급하는 것은 철학적이고, 지식사회학적으로 관찰에서처럼 형이상학적이 되어 버린다. 따라서 그의 사회학의 가장 공헌적인 것은 공개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Karlstadt는 그의 저서에서 제1장 '역사 사회학'을 제2장에서는 '체계 사회학'을 그리고 마지막 제3장에서는 '지식 사회학'으로 구성하고 이에 도서관의 공개성에 대해서 사회 인식론적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하였다.

5 결 론

이상에서 Shera의 '도서관 인식론'을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의 생애를 일별해 본다면 1903년에 태어나 1982년 3월 8일에 영면할 때까지 크게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1947년에서 1952년까지 시카고 대학재임 시절기, 제2기는 1952년에서부터 1970

년까지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에서 도서관학 대학원장직을 수행하고 동시에 이 대학부설로 정보학 연구소의 호시라고 할 수 있는 『도큐멘테이션·커뮤니케이션 연구센터』를 설립한 시기, 마지막으로 1970년 은퇴이후부터 1982년에 작고하기까지 교육과 저술활동을 끊임없이 해 온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Shera가 1931년부터 1987년까지 발표한 논저에 대한 계량서지적 분석이다. 논저가 480여 편이나 되며 단행본이 15권에 이른다. 그의 저작기간이 1931년부터 시작하여 51년간이기 때문에 1년에 10여 편의 논저를 발표한 셈이다. 이상과 같은 495편의 논저들의 주제를 보면 백과사전적 성격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활동영역은 도서관학이 '기술'이나 '과학'이나의 초기 담론과정에서 일어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도서관의 본질, 라이브러리언십의 사회적 접근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망라적인 연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Shera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도서관학자로서 이론가, 교육자, 철학자이며, 그리고 그의 관심은 공공도서관사 연구에서 시작되어 분류, 목록, 서지, 도큐멘테이션, 도서관의 기계화, 공공도서관 운영, 도서관 교육과 도서관연구 등 매우 광범위하게 활동한 대표적인 학자이다. 마치 걸어 다니는 백과사전적 도서관인이다. 그렇지만 그는 라이브러리언십의 이론적 기반에 관심을 가지고 중점

적으로 연구하였다. Shera의 박사학위 논문은 '공공도서관 성립의 사회적 기반'을 역사적으로 규명하려고 하였으며, 1960년대에는 라이브러리언십 그 자체의 이론적 기반으로써 '사회적 인식론'을 도입하려고 시도하였다. 그의 저작 목록을 살펴보면 『...의 기반(The foundation...)』로 하는 논제가 특히 많은 것도 그가 이론적 기반에 관심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넷째, 사회 인식론의 가장 실제적인 응용의 한 면은 곧 도서관직에 있다. 바로 사회 인식론과 도서관직 사이에는 매우 중요한 유연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 무자가 그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도서관직은 인식론의 기초 위에 기초를 두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식의 성질에 관계를 하며,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 지식의 활용을 다루기 때문이다. Shera는 사회학적 입장에서 지식을 논하고, 인식론이란 말할 것도 없이 순수한 의미에 있어서 '지식 자체에 관한 지식의 연구이다'. 고로 사회인식론은 사회에 있어서의 지식의 연구이다. 따라서 사서직은 사회문화의 발전과 법칙을 모르고 훌륭한 전문직을 얻을 수 없다. 또한 도서관은 '인간의 기록 지식을 사회적 기억으로서 체계 있게 조직하여 제공하는 사회기관이다'. 즉 도서관을 사회제도가 아닌 사회기관(social agency)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Butler도 "도서관은 인류의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사회적 메카니즘이며, 도

서관은 이를 현존하는 개인의 의식으로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사회적 기구(social apparatus)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서관 자체를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개념으로 보고 이론을 전개시키고 있는 것이 도서관이나 도서관학 자체를 인식론적 기반으로부터 연구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서의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훌륭한 사서의 자세에는 세 가지를 주문하고 있다. 하나는 자신의 장서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이해력이고, 두 번째는 그 자료들을 유용하게 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머 감각을 들고 있다.

〈참고문헌〉

- 셰라, 제이. 에이치. 윤영 옮김. 1984. 『도서관학의 사회학적 기반』. 서울: 구미무역(주)출판부.
- 霍國慶, 孟廣均, 徐引篋. 1998. 西方圖書館學流派論評. 圖書情報工作(LIS)(4).
- Alvin J. Goldwyn, 1982. "DR JESSE SHERA-SCHOLAR, *Herald of Library Science*," 21(1-2: Jan-Apr).
- Boulding, K. E. 1961. *Image: Knowledge in Life and Society*. Ann Arbor, Univ. of Michigan Press.

- Buchanan, Scott. 1973. *Embers of the World Conversations with Scott Buchanan*, edited by Harris Walford (Santa Barbara, California: Center for the Study of Democratic Institutions).
- Butler, Pierce. 1933. *An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utler, P. 1952. *The cultural function of the library*.
- Cooley, Charles H. 1922. *Social Process*. New York. Scribner. pp. 19 and 29.
- Cutter, C. A. 1876. *Rules for a Dictionary Catalog*. Washington, GPO.
- Gates, Jean K. 1976. *Introduction to Librarianship*, 2nd ed. New York, McGraw-Hill Book Co.
- Golgwyn, Alvin J. 1982. Dr. Jess Shera-Scholar. *Herald of Library Science*, 12(1-2).
- Helprin, Laurence B. 1965. Critique and Response to Paper by Jess H. Shera. *An Epistemological Foundation for Library Science. Symposium on the foundation of Access to Knowledge*. Syracuse Univ, July 28-30.
- Kaltenbach, M. 1986. Shera, Jess Hauk. In *ALA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 2nd ed. Chicago, ALA. pp.762-764.
- MacLeish, Archibald. 1972. The Premise of Meaning, *The American Scholar* 41 (Summer).
- Rawaki, Conard H. 1985. Shera, Jess Hauk. In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 38, Supplement 3. pp. 348-371.
- Shera, J. Hauk and Margaret E. Egan. 1951. *Bibliographic Organization: papers Presented before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Graduate Library School* July 24-29, 1950.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 Shera, J. Hauk. 1965. *Libraries and the Organization of Knowledge*, Crosby Lockwood, London: Archon Books, Hamden, Coon., .
- Shera, J. Hauk. 1966. *Documentation and the Organization of Knowledge*, Crosby Lockwood, London: Archon Books Hamden, Conn., .
- Shera, J. Hauk. 1970. *The Sociological Foundations of Librarianship*, Asia Publishing House, Bombay, India. and New York. Sarada Ranganathan Lectures, No. 3. 1967. Russian transl. by Victor A. Polushkin. Moscow, 1973: Persian transl. in *Journal of the Iranian Library Association*. Vol.

- 10, No. 1, Spring 1977, pp.1-21:
Urdu transt., Lahore, 1980.
- Shera, J. Hauk. 1971. *Foundations of the Public Library: The Origins of the Public Library Movement in New England 1629-1955*,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1949 Reprinted, Shoestring Press, Hamden, Conn., 1965 and 1974. Chaps. 3 and 7 reprinted in M. H. Harris, *Readings in American Library History*, NCR Microcard Editions, Washington, D.C., .
- Shera, J. Hauk. 1972 *The Foundation Education for Librarianship*, Wiley-Becker and Hayes, New York.
- Shera, J. Hauk 1976.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 Basic Elements of Library Service*, Libraries Unlimited, Littleton, Colo.
- Shera, J. Hauk. 1983.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In *The Study of Information: Interdisciplinary Messages*, Edited by Fritz Machlup and Una Mansfield. New York, John Willy & Sons.
- Sumner, William Grahon. 1940. *Folkways*. Boston, Ginn. pp. 53-54. *Library Quarterly*, vol. 7, no. 4 (October 1937). 여기에서 사용하지 않은 사회적 단체라는 용어의 또 하나의 사용은 도서관, 학교, 또는 교회와 같이, 실체를 지정하는 것 또는 특별한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사회에 의해 고안된 관습이다: 예, Lowell Martin은 "사회 기구로서 미국공공도서관"으로 용어를 사용하였다.
- Williamson, Charles C. 1923. *Training for Library Service: A Report prepared for The Carnegie Cooperation of New York*. New York.